



## Deloitte Newsletter

### 업계 주요 뉴스

회계, Tax, M&A 등 관련 업계의 주요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발 빠른 `빅 4` 회계법인 로펌시장 진출 잔걸음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회계법인들이 로펌을 인수하거나 새롭게 로펌을 만드는 등 전통적인 로펌·회계법인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업계 관계자는 "빅 4 회계법인들이 자체 로펌(법무법인)을 두거나 기존의 로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2012년 법무법인 정안을 설립했으며, 회계법인 업계 4위 한영회계법인은 아예 기존에 있던 법무법인을 인수했습니다. 그 외 회계법인들은 자체 법무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 유통가, 하반기 M&A 시장...대어는?

올 하반기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은 대어를 낚으려는 기업들의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매물로 나온 업체 가운데는 천문학적 규모의 가치를 가진 곳도 있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수년간 소문만 무성하던 홈플러스 매각설이 최근 다시 또 수면위로 오른 상황이며, 예상 거래 규모만 최소 7조 원으로 이는 국내 M&A 사례 중 최고가에 달합니다. 또한 웅진의 레저부문 계열사인 '웅진플레이도시', '동부익스프레스'도 올 하반기 M&A 시장의 주목 받는 매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 삼일회계법인, 원스톱 서비스 강화... 임원 승진인사 단행

삼일회계법인이 서동규 부대표를 회계법인의 '원스톱 서비스'를 담당하는 복합본부 수장으로 승진 임명했습니다. 지난 6월 삼일회계법인은 파트너 정기총회를 열고 서동규 부대표를 대표로 승진시키는 내용을 담은 54명 임원 승진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동규 대표는 앞으로 삼일회계법인이 주력하고 있는 복합본부 서비스 총괄대표를 맡게 되며, 복합본부는 재무자문, 감사, 세무, 컨설팅 등을 묶어 '원스톱'으로 서비스해주는 본부입니다.

## EY 한영, 임원 19명 승진 인사...6년 만에 최대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 한영은 지난 7월 1일자로 19명 임원(부대표 3명, 전무이사 4명, 상무이사 12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Y 한영에서 19명이 임원 승진한 것은 최근 6년동안 가장 많은 수치로 신규 승진한 3명의 부대표는 권민용 부대표, 박용근 부대표, 장석룡 부대표입니다.

## 회계감사 시장 사실상 포화상태 새 수익원 확보 위해 업무 확대

주요 회계법인들이 전통적인 회계감사 업무를 넘어서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컨설팅, 특히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RP 구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상속팀(Deloitte Private)을 구성하여 재테크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속시장에서 서비스 차별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EY 한영은 올해 해외 에너지 개발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자문에 주력하고 있는 등 틈새시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4대 회계법인, 뜨거운 '신입 스카우트 전쟁'

법인을 비롯하여 삼일, 삼정, 한영 등 대형 회계법인들이 8월 28일 제 50회 공인회계사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우수 인재 모시기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4대 회계법인 신입 회계사 채용 규모는 삼일 240명, 삼정 240명, 안진 200명, 한영 200명 등 모두 880명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670명)보다 210명 더 뽑게 되며, 지난해 합격자가 886명인 것을 감안하면 합격자의 상당수를 대형 회계법인에서 흡수하는 것입니다.

## 보험사-회계법인, IFRS4 준비 '짜릿기' 붐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한화손보 등 4개 보험사가 외부 회계법인과 함께 IFRS4 2단계 도입 준비에 나섰습니다. 보험사 IFRS4 2단계 컨설팅이 회계법인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각되면서 회계법인간 딜 따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는 초창기 시장에서 경력을 쌓지 못하면 향후 타 보험사의 컨설팅 경쟁입찰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IFRS4 2단계 컨설팅을 맡은 곳은 법인과 삼일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으로 4대 회계법인 중 삼정 KPMG의 경우 유일하게 프로젝트를 따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 하나-외환은행 통합에 숨죽인 한영회계법인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통합작업이 급물살을 타자 이들 두 은행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EY 한영회계법인의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올해 9월 하나-외환은행 통합은행이 출범하게 되면 한영회계법인으로서는 굵직한 매출처 하나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7년 연속 각각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했고, 하나금융도 한영회계법인에 7년 연속 회계감사를 맡겼다. 우리은행 역시 7년 연속해서 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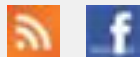
## 회계법인들 세무부문 수익 비중 커져

회계법인의 수익에서 세무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감사인(회계법인 감사반) 간 가격경쟁이 심해지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이 절실해졌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감사 투입시간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비해 실질적인 감사수임료는 매년 줄고 있어 회계법인이 수입원 발굴을 위해 세무부문 자문 등에 주력하게 되고, 지난해 국세청이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 회계법인 '빅 4'도 인터넷은행 경쟁 가세

정보통신기술(ICT)업계와 금융권이 인터넷은행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회계법인 빅 4도 본격적으로 경쟁구도에 가세해 신사업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회계와 재무 자문은 물론 '핀테크'의 총아인 인터넷은행의 경영전략까지 여러 분야에서 신시장을 창출, 새 수익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00V에 앞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을 발표한 3곳도 최근 대형 회계법인과 자문계약 체결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연말께 선정될 인터넷은행 후보 0순위로 꼽히는 다음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KB국민은행 간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은 딜로이트 안진을 회계와 재무자문사로 일찌감치 낙점했습니다. 그 외 KT와 교보생명·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KT 컨소시엄'은 EY한영에서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 PwC는 인터파크를 중심으로 SK텔레콤과 기업은행이 참여하는 인터넷은행 컨소시엄과 손을 잡았습니다.

[Deloitte Korea](#) | [RSS](#)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9층  
150-945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와 그 회사들의 네트워크는 법적으로 독립된 조직입니다.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와 각 회사의 법적인 구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www.deloitte.com/kr/about](http://www.deloitte.com/kr/about) 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